

인문한국(HK)3.0 지원사업

ISSUE 01

JUN 2026

Africa Nexus Brief

아프리카 그린·디지털 전환을 읽다

GREEN · DIGITAL · CLIMATE · SOCIETY

Africa Nexus Brief

아프리카의 변화와 연결성을 읽는 브리프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HK3.0 아프리카 넥서스 연구단은 인문한국(HK)3.0 지원사업 〈아프리카 MZ세대와 넥서스 인문학: 아프리칼리티와 글로벌리티의 역동성 연구〉를 수행하며, 아프리카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와 연결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늘은 하나의 주제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도시의 변화, 사람과 물자의 이동, 디지털 기술의 확산, 대중문화의 성장, 기후와 에너지 전환이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며,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에 주목합니다.

『Africa Nexus Brief』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주요 이슈와 변화의 흐름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브리프입니다. 특히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며, 에너지와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청년 창업과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프리카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브리프에는 연구단의 세미나와 학술행사, 자료 구축과 조사 연구 과정에서 포착된 쟁점, 학문후속세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관심사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둘러싼 새로운 지식과 담론을 함께 나누는 작은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Brief #1 유럽의 기후규범, 아프리카의 국경시장까지 닿을까

케냐 Busia에서 생각해보는 기후통상과 청년의 삶

작성자 | 한림대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학문후속세대(석사과정) 황수연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다. 탄소를 줄이고 숲을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느새 무역 규칙, 수출 조건, 통관 절차, 생산 방식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 식품안전·검역 기준(SPS)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기후와 환경을 위한 규범으로 등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변화는 아프리카에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새로운 국제 규범에는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유럽 시장과 연결된 농산물, 원자재, 식품, 목재 관련 품목은 앞으로 생산 과정, 원산지, 환경 기준을 더 세밀하게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종종 현장의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케냐와 우간다를 잇는 Busia 국경지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기에 흥미로운 공간이다. 이곳에서 국경은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이 아니다. 사람과 물건이 오가고, 가족과 상인이 연결되며, 가격 정보와 일자리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생활의 통로다. 어떤 청년에게 국경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다른 청년에게는 통관 비용과 단속, 불안정한 수입을 마주하는 장소일 수 있다.

물론 CBAM이 Busia의 소규모 상인에게 곧바로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제도의 직접 적용 여부만이 아니다. 기후와 환경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역 규범이 점점 늘어날수록, 아프리카의 지역 경제와 국경지대 주민들도 그 변화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어떤 상품이 더 까다롭게 관리될까”, “수출 기준이 바뀌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정부나 기업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려줄까”와 같은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 케냐 Busia 국경지대는 사람, 물건, 정보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기후통상 규범은 이곳에서 생계와 비용,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Google Gemini(Nano Banana) 생성 이미지

특히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공식 문서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WhatsApp, Facebook, 온라인 뉴스, 상인 네트워크, 가족과 지인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고 해석한다. 어떤 정보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정보는 불안으로 남는다. 그래서 기후통상 정책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정책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계, 비용 부담, 제도 신뢰, 정보 접근성, 미래 가능성이 함께 섞인 생활 속 판단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외부 규범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만은 아니다. 지역의 청년과 상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해석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부담으로, 때로는 새로운 시장 기회로 받아들인다. 기후통상 규범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국제회의장이나 정책 문서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Busia와 같은 국경지대의 시장, 이동 경로,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후통상 논의는 제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공정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드는 쪽의 언어뿐 아니라, 그 규칙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Brief #2

바람과 땅속 열기가 바꾸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남아공 Cookhouse 풍력발전단지와 케냐 Olkaria 지열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한림대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학문후속세대(석사과정) 이햇님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주요 피해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뭄, 홍수, 사막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는 단순한 기후위기의 피해자를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ookhouse 풍력발전단지와 케냐의 Olkaria 지열발전 사업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저탄소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주에 위치한 Cookhouse Wind Farm은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REIPPPP(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를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였다. Cookhouse 프로젝트는 총 66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며 연간 약 29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로젝트 지분의 일부를 지역 커뮤니티 신탁에 배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교육 및 의료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케냐는 풍부한 지열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Olkaria II 지열발전 사업은 케냐 나쿠루 카운티의 올카리아(Olkaria) 지열지대에서 추진되었으며, 기존 발전설비를 확장하여 발전용량을 70MW에서 105MW로 확대하였다. 지열발전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기상 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해당 사업은 UN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되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케냐의 전력 공급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 출처 : NJR ZA, "Cookhouse wind farm-001.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출처: Macabe5387, "Olkaria V Geothermal Power
Station.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들 사례는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사업 모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되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탄소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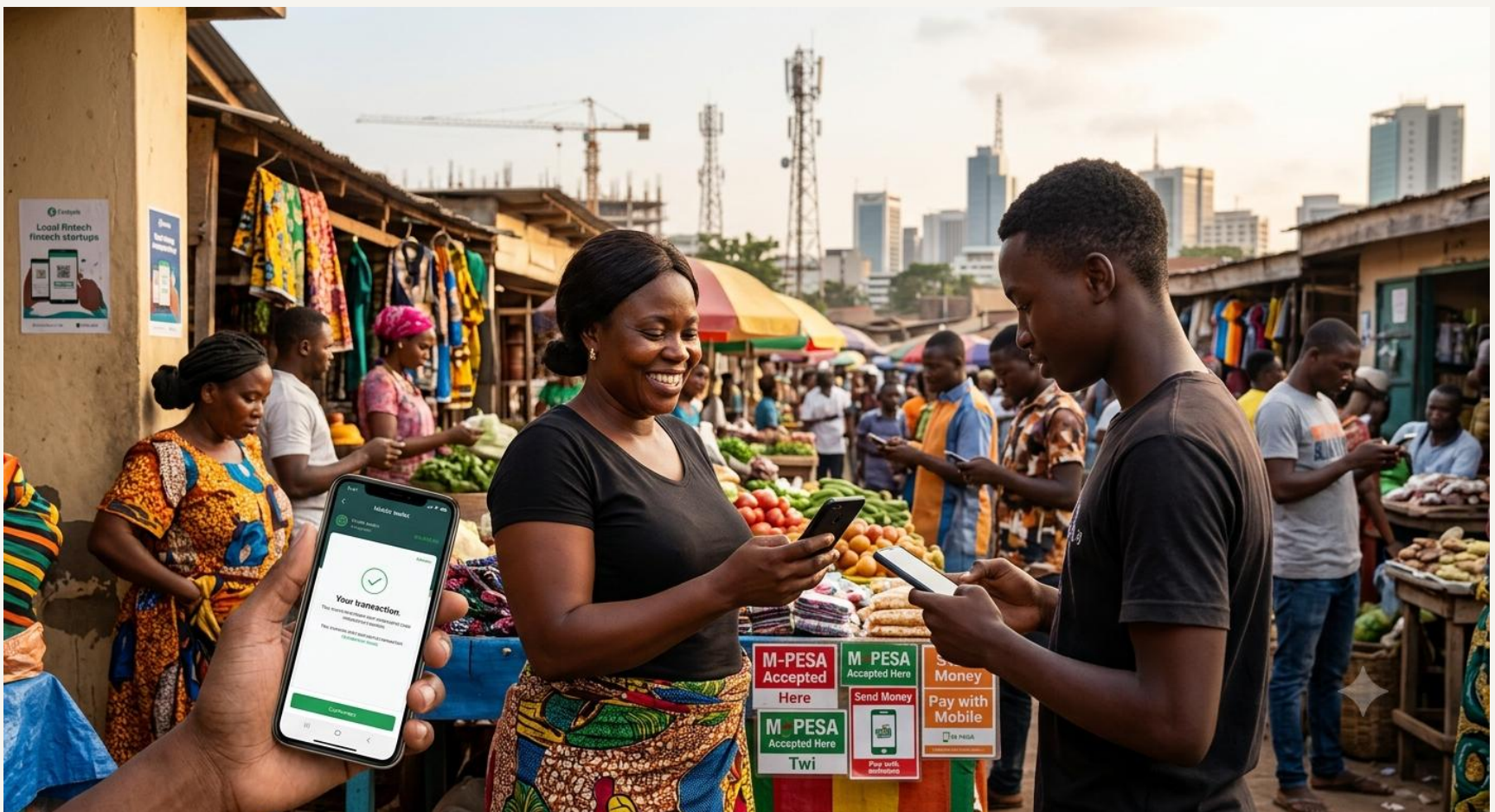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남아공 Cookhouse의 바람과 케냐 Olkaria의 땅속 열기는 기후위기 시대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풍력과 지열이라는 각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활용한 이러한 시도들은 에너지 접근성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진다면, 아프리카는 녹색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ief #3

스마트폰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혁명

작성자 | 한림대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학문후속세대(학사과정) 정진영

최근 아프리카 전역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은 주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가나의 아크라 및 케냐의 나이로비 등 주요 도시와 인근 지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던 수많은 주민들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금융포용성(Global Findex) 보고서와 아프리카 핀테크 전문 매체 Finhive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저축이나 송금에 큰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지갑 기술(Wallet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하고 소액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프리카 민중들의 삶의 방식을 보다 주체적이고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다.



▲출처: Google Gemini(Nano Banana) 생성 이미지



▲출처: Fiona Graham, "M-PESA mobile money and Equity agent, Nairobi, Kenya,"
Wikimedia Commons

이러한 모바일 금융 혁명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 소외되었던 지역 경제를 중앙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나 ATM 기기 등의 인프라 확충이 더뎠던 아프리카 대륙에서, 디지털 기술은 이른바 '도약(Leapfrogging)'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시장의 상인들이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 신용 사회가 구축되고 자본 순환의 속도 또한 한층 빨라졌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아프리카의 젊은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와 국제 사회가 이러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포용적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Brief #4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전략지, 아프리카의 녹색 전환

작성자 | 한림대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학문후속세대(학사과정) 김유빈



▲출처: 생성형 AI ChatGPT 생성 이미지

아프리카는 지속적으로 전력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재생에너지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신규 전력 프로젝트의 무게중심이 석탄화력과 대형 수력발전에서 태양광·풍력·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BESS)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전력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 발전소는 개발 기관과 금융비용 부담이 크기에 정부와 투자자가 짧은 시간에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검토하는 흐름이다.



▲출처: Munro89, “Micro-grid using small wind turbines, solar PV, energy storage,” Wikimedia Commons

지난 5월 초, 중국과 잠비아가 발표한 15억달러 규모 에너지 협정에도 태양광, 풍력, 석탄화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화력 에너지도 수요를 반영하지만, 신규 투자 방향은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연료비 변동 위험이 낮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아프리카가 2025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했다고 집계했다. 전년 대비 3배 규모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이전, 설비와 인프라의 확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산한 에너지를 운송 및 저장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전력 문제와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에서의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전환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Africa Nexus Brief

아프리카 그린·디지털 전환을 읽다

- 발행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 문의 africa.nexus.brief@gmail.com
- 발행일 2026년 6월 30일